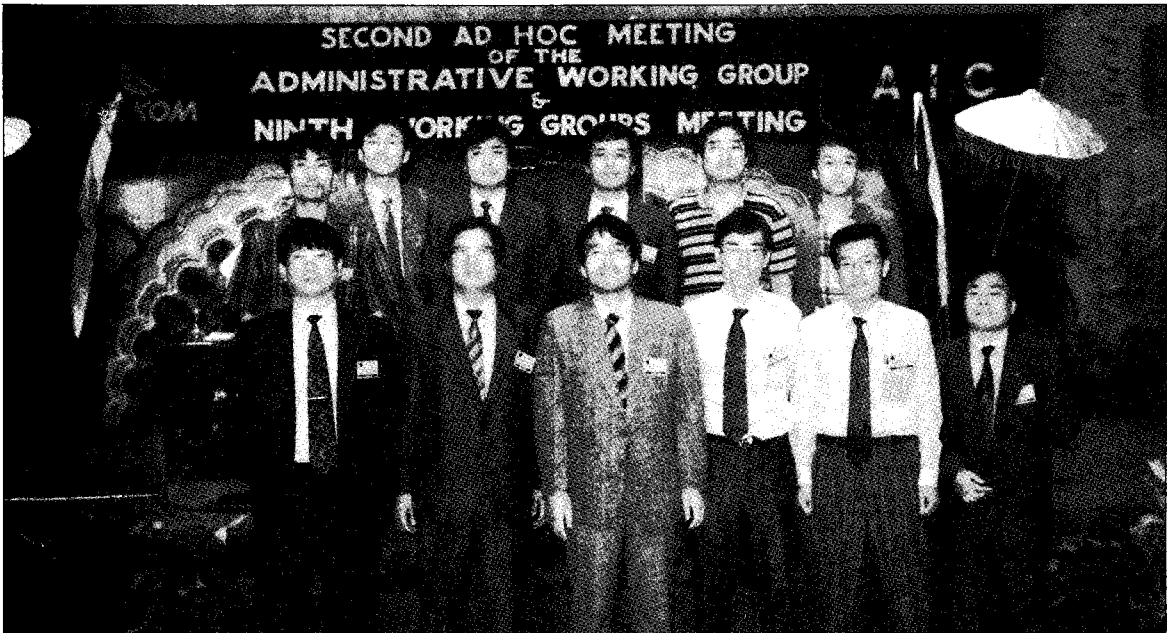


# AIC 제 9 차 WG 회의

백영기/TU국



아시아 ISDN협의회(AIC:Asia ISDN Council) 제 9 차 실무자 회의(Working Group Meeting)가 1992년 4월13일 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되었다.

7개의 AIC 전 회원국가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간의 전기통신망 현대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아시아 문화권에 맞는 ISDN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각국의 ISDN 표준화 활동, ISDN 관련 개발 기술 소개, ISDN 추진 계획 및 현황 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실무자 회의에 앞서 가졌던 임시관리이사회(Ad Hoc Meeting)에서는 93년 3월로 종료되는 AIC 회기를 연장하기로 한 8차 WG 회의의 결의에 따라 연장기간에 다루어야 할 중요 과제들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92년 10월에 개최될 서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국내 전기통신 관련 기관 및 실무자들이 AIC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10월에 개최될 제 10 차 WG 회의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필자는 본인이 참석한 실무자 회



회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 본다.

### 회의의 개요

4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5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된 아시아 ISDN 협의회(AIC) 제 9 차 Working Group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19명을 비롯해 모두 7개국 123명이 참가하여 ISDN 기술 개발과 이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AIC에 참가했던 인원을 나라별로 보면<표 1>과 같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일본이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으며, 그 다음 우리나라가 19명으로 ISDN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참가단 구성을 보면, 한국통신에서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소 6명, 금성정보통신(주) 2명, 삼성전자(주) 1명, 대우통신(주) 2명, 한국통신기술협회 1명으로 모두 19명이다.

한편 이번 AIC 회의에는 15편의 논문과 기고문 24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발표 논문 내용은

- A Data Application Scheme in ISDN Field

Trial(한국통신)

- Implementation of ISDN Functions for ISDN Commercial Service(한국전자통신연구소)
  -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ate Adaptation in ISDN TA(삼성전자(주))
  - An Implementation of Interworking with PSTN on TDX-1B(금성정보통신(주))
  - ISDN Planning in Korea Telecom(한국통신)
- 이며, 기고문의 내용은
- ISDN Application Handbook(한국통신)
  - ISDN Development(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이다.

### 회의 내용

5일 동안 펼쳐진 이번 회의의 주요 일정을 보면, 14일에는 개회식과 “ISDN 기초 기술 가이드북”을 교재로 하여 Tutorial(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앞서 있는 개회식에서의 연사로는 President Director of P. T. Telecom과 AIC 사무차장, Governor of Bali, Minister of Tourism Posts &

Telecommunications of Indonesia, Executive Director of APT 등이 참가하였다.

Tutorial 프로그램의 교재로 사용된 “ISDN 기초기술 가이드북”은 1991년 5월 AIC 4차 총회에서 발간 한 것으로 총 9장(章)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한국은 2차 Version(버전) 작업에 6장과 10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TRI의 이준원 실장등이 강사로 참가하여 AIC 참가자 및 현지 대학생들에게 각국 ISDN 전문가들이 강의형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회식 다음날인 15일에는 Working Group 1 회의가 열렸다. 회의 진행은 의장인 ETRI의 임주환 박사가 맡았으며, ISDN 기초기술 가이드북 2차판 작성과 ISDN 유지보수 가이드북을 작성하였다.

또한 각국의 ISDN 추진현황과 관련한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ISDN 기초 기술 가이드북 2차 Version 완성과 ISDN 유지보수 가이드북 수정 및 관련논문의 발표를 차기 서울회의에서 추진키로 하였다.

16일에 열린 Working Group 2 회의는 일본 KDD의 Mr. Toshiki Ueda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ISDN 응용핸드북 작성과 WG 2의 4가지 주제별 논문 발표가 있었다.

주제 1은 전기통신 계획 및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1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주제 2는 기업통신분야로 2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제 3은 ISDN 응용모델로 총 7편의 관련 논문이 소개되었고, 주제 4는 ISDN 사례 연구이었으나 발표논문이 없었다.

## 기타내용

AIC 회기 연장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AIC 활동을 5년간 연장하여 93~98년 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고 연장에 따른 활동범위, WG 운

영 등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은 한국에서 개최될 관리이사회에서 승인토록 하였다.

또한 AIC 회의 개최 주기에 있어 WG 회의는 기존에 1년 2회 개최에서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총회는 기존에 1년에 1회 개최하던 것을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오는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릴 AIC 제 5차 총회 및 제 10차 WG 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한 확인을 통해 차기 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참석소감

과거 88년 12월의 마닐라 2차 WG 회의와 89년 5월의 서울 3차 WG 회의에 이어 본 회의에 3번째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AIC 회의는 일본이 주도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이 AIC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방안 강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회의를 유치한 인도네시아는 회의 개최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오랫동안의 꾸준한 준비와 계획아래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여겨져서 엿보였고 우리나라의 올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회의유치를 위한 회의장소, 회의시설, 회의장 지원반 활동 등에 대해 국내 참가단이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Block(블럭)화 측면에서 AIC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표준화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 표준화 활동으로 볼 때, AIC의 회기 연장은 바람직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가 조속히 AIC 활동에 보다 전문화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회의 무대에서 주역으로서 자리하고 주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